

프롤로그

단일민족이라 해왔던 한국사회는 다양한 유형의 이주민 유입으로 급격히 다문화사회화 되고 있으며, 다문화 혼인의 비중이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정 학생들의 비중 또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2018 통계청 보도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학생의 인구는 1980년 이후 계속해서 감소 추세인 반면, 다문화 학생은 전년보다 10.3% 증가하였으며, 최근 5년간 1만명이상 증가하였고, 우리나라 전체 출생아 수 또한 감소하고 있는 반면, 전체 출생아 대비 다문화가족 출생 비중은 4~5%를 유지하고 있어 전체 출생에서 다문화 출생이 차지하는 비중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나라는 단일 민족이 아닌 다문화 사회로 들어섰으나, 다문화 가족구성원이 한국사회에 적응하고 차별받지 않고 살아가기에는 너무 열악한 실정입니다. 특히 다문화 학생이 겪는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문제, 학습 부진, 정체성 혼란 등의 어려움 등으로 학업 중단률은 전체학생 대비 두 배 가량이나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이 제기되어 2009년 교육부의 다문화가정 학생 교육지원 정책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 이 모국 교원자격증 소지자와 일정자격에 해당하는 이주민을 대상으로 집중교육을 실시하여 다문화언어 강사를 양성하였습니다. 다문화언어강사는 다문화 교육 거점 학교에서 활동하며, 다문화가정 학생의 이중 언어 교육, 중도입국 학생 통번역, 방과 후 언어 부진아 교육, 다문화가정 학부모 교육 및 상담과 전체 학생을 대상으로 다문화 이해 교육 등의 기본 소양교육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문화사회에서 다문화언어강사의 역할과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지만, 그들이 현장에서 받는 급여나 근로계약형태, 처우 등은 타 강사에 비해 차별적이고, 열악한 수준입니다.

이에 한코리아는 다문화언어강사의 필요성 및 다문화 사회의 소외계층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생명보험사회 공헌위원회와 수호천사 동양생명의 후원을 받아 3년째 다문화언어강사를 위한 역량강화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본 사례집은 2018년 한 해 동안 진행해온 「다문화언어강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의 사업 내용과 다문화언어 강사와 다문화 학생의 이야기로 구성하였습니다.

다문화 가족이 우리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써 모두가 존중받고 차별 없는 다문화 사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다문화언어강사 역량강화사업」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주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수호천사 동양생명, 관련 전문가 분들 그리고 사업에 참여해 주신 모든 선생님들과 학생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참고 자료

제3차 다문화가족정책 기본계획(안). 여성가족부.
2017년 다문화 인구동태 통계. 2018.11.23. 통계청 보도자료
2018 청소년 통계. 2018.4.26. 통계청 보도자료

CONTENTS

감사글	08
ACKNOWLEDGEMENT	

사업소개	09
BUSINESS INTRODUCTION	

다문화언어강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소감문	12
REVIEW	

다문화언어강사들의 프로그램 참여 후기

교육수기 수상작	22
PRIZE WORK	

대 상 이서연	장 려 상 남경민
최우수상 소네에이꼬	장 려 상 나유키마사에
우 수 상 오오쿠보미호	열 정 상 노마치유카



어느덧 다문화언어강사 사업이 시작 된 지 10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 다문화언어강사연합회를 성립하여 스스로의 힘으로 다문화교육의 역량을 강화시킬 사업을 실시 하느라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저희 연합회의 회비만으로는 운영하기 어려워 여러 기관의 지원을 요청하는 일부터 시작하여 행사준비과정 및 행사를 진행하는 것에 미숙한 부분들이 많았습니다.

저희들이 다문화교육의 발전을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고 있던 때에 한국코리안과 좋은 인연을 맺게 되었고,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 한국코리안의 후원으로 점차 자리잡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보험, 한국코리안의 지원과 후원을 통해 올해에도 야외학습, 수업연구 발표회, 주제별 워크숍, 교육수기 및 수업연구 공모전 등의 활동을 진행할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활동들을 통해 다문화언어강사들이 서로 절차탁마하여 역량을 강화시킬 수 있었고, 근무 지역이나 언어권이 달라도 하나가 되어 연대감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문화언어강사들을 위해 이러한 기회를 계속해서 만들어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와 동양생명보험 그리고 한국코리안에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받았던 지원과 많은 관심을 바탕으로 앞으로도 학교현장에서,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한 구성원으로서 다문화교육의 책임을 갖는 다문화언어강사연합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문화언어강사연합회 회장 기다야스코

다문화언어강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

다문화언어강사 역량강화 사업의 목적

다문화 교육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언어강사의 역량을 강화시켜, 교사로서의 자긍심과 경쟁력을 가지고 계속해서 교육 현장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며, 이를 통해 다문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고, 더욱 강화된 다문화언어강사의 역량을 활용하여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문화 학생의 적응을 돕기 위해 본 사업을 이어 가고 있으며, 나아가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와 사회통합에 기여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2018년 다문화 언어강사를 위한 역량강화사업의 세부 사업 내용

구분	내용
수업연구발표회	- 다문화언어강사가 직접 개발한 수업 연구 내용을 발표 - 수업내용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 및 평가, 참석한 다문화언어강사와 연구내용 공유
주제별워크숍	- 외부 전문가에 의한 특강 및 워크숍 진행 - 현장전문가를 통해 이론보다는 실제 수업에 활용 가능한 교수법과 실습 중심으로 구성
야외학습	- 유적지 탐방, 정통문화 체험, 세계시민교육 등의 테마와 다문화 교육을 접목시킨 야외 학습 활동 - 교육 커리큘럼 개발과 다문화언어강사간의 친밀감 형성, 교류 기회로 활용
학생멘토링	- 위기상황에 있거나 적극적 돌봄이 필요한 저소득 다문화 학생에게 다문화언어강사가 학업과 정서적 멘토링 제공 - 학습지도, 견학, 야외활동, 문화공연관람, 부모 상담 등에 활용할 수 있는 멘토링 활동비를 지원하여, 멘토링에 대한 지속적인 동기 부여와 멘티와의 다양한 활동이 가능하게 하여 멘토링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킴 - 학교에서 다문화언어강사들의 역할과 중요성을 인식하는 계기 제공
교사장학금 지원	- 다문화언어강사에게 필요한 역량 강화의 기회제공 - 한국어 교육, 상담 교육 등 다문화언어강사 개인이 희망하는 교육을 수강할 수 있도록 지원 - 교육 현장에서 활용 가능한 실제적인 교육을 우선으로 지원
교육수기 및 수업연구 공모전	- 교육 현장에서 겪은 이야기, 멘토링 사례 등 다문화언어강사들의 보람과 가치 등을 주제로 수기 공모 - 주제별 워크숍, 수업연구발표회 등을 통해 얻은 노하우를 응용한 수업연구과정안 및 자료 공모 - 전문가의 심사를 통한 우수 공모작품 시상

R E V I E W



소감문

다문화언어강사들의 프로그램 참여 후기



다문화 언어강사들의 프로그램 참여 후기



야외학습

· 박가비니 선생님 ·

2018년도 4월에 참여했던 야외학습에 대한 소감을 적어보고자 합니다. 새 학기가 시작하고 봄이 되어서 여름이 다가오는 시기에 적절한 날씨, 춥지도 덥지도 않고 날씨가 매우 좋았습니다. 저를 포함한 다문화 언어강사 약 40명이 아침 일찍 모여 가평으로 떠났습니다. 항상 똑같이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봄을 만끽하니 저와 선생님들은 모두 설레는 마음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먼저 가평 아침고요수목원에 방문하였습니다. 수목원에 돌아다니면 해설자가 설명을 해주셔서 이 나무 저 나무 많이 알게 되었습니다. 교사들과 함께 재미있게 잘 다녀왔습니다. 아주 좋은 구경을 했습니다. 맛있는 점심을 먹고 차를 마시며 여유를 즐겼기에 아주 좋았습니다. 또한 허브나무 한 그루를 심고 집으로 가져왔습니다. 아주 생각도 못한 선물까지 받아와서 정말 감사했습니다.

오후에는 뽕피프랑스에 들러, 가평에서 프랑스의 정취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이국적인 건물들과 분위기에 신기해하면서 구경을 했고 사진도 많이 찍었습니다. 아주 의미 있는 하루였습니다. 서울 주변인 가평이어서 멀지 않고 차도 막히지 않고 공기도 좋고 날씨도 좋아서 아주 행복했습니다. 평소 서울 중심에 살고 있어서 답답했었기에 가끔 이런 나들이 가는 것은 아주 좋습니다.

야외학습을 통해 문화체험뿐만 아니라 다른 다문화언어강사들과 소통하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제공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 소중한 추억으로 간직하겠습니다.

일시

2018년 4월 21일(토)
08:00 ~ 18:00

장소

가평 아침고요수목원,
뽕피프랑스

내용

수목원 식물 관찰,
허브나무 심기 체험,
프랑스 문화체험, 단합회 등

참석인원

40명



수업연구발표회

• 다문화언어강사 일동 •

2018년 수업연구발표회를 통해 현재 학교에서 다문화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다문화언어강사들의 연구 발표를 들 수 있었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교육 경험 및 노하우를 살린 수업 발표를 통해 서로에게 도움이 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선생님들이 직접 연구하고 개발한 수업 내용을 발표하는 기회를 가짐으로써 발표자와 청중 모두에게 유익했고, 이를 통해 앞으로 좀 더 다양한 주제와 구성의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기회를 바탕으로 다문화언어강사들의 역량을 발전시키고 더 좋은 수업을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좋은 자리를 만들어주신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일시

2018년 7월 7일(토)
09:00 ~ 15:00

장소

서울특별시여성가족재단
회의실

발표

조금숙 <다문화이해교육>
한유진 <KSL한국어(초급)>
오오쿠보 미호
<세계시민교육(사회, 환경문제)>
문금란 <KSL한국어(문법)>
자르갈 <국제이해교육(몽골문화)>

참석인원

94명



주제별워크샵

다양한 주제로 진행된 주제별 워크샵을 통해 다문화언어강사들에게 전문성 향상과 경쟁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되었습니다.

1차 주제별 워크샵에서는 인권 교육, 심리상담/치료 관련 교육이 진행되었고, 2차 주제별 워크샵에서는 KSL 교육 및 강의법, 레크리에이션 및 놀이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각 분야의 전문가들을 초빙하여 진행된 프로그램이었기 때문에 전문적인 내용을 공부할 수 있어서 좋았고, 다문화 교육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시

1차 | 2018년 4월 27일(토)
10:00 ~ 15:00
2차 | 2018년 11월 3일(토)
10:00 ~ 15:00

장소

서울여성플라자 시청각실

강의

인권 교육(임종근 강사)
심리상담/치료 관련 교육(문유숙 강사)
KSL 교육 및 강의법(김경은 강사)
레크리에이션 및 놀이 교육(이현주 강사)

참석인원

89명



수업연구공모전

• 다문화언어강사 일동 •

2018년 12월8일 다문화언어강사 역량강화사업의 일환으로 동양생명배 수업연구 공모전이 서울시 상도2동 주민센터 다목적실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상당히 추운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오전 10시부터 서울지역과 경기 지역의 수업 연구 발표하는 7명의 다문화언어강사 선생님들과 참관하는 동료강사선생님들이 한자리에 모여 평소부터 쌓아온 연구 성과와 수업실력을 연마하고 서로가 배우고 공유하는 열기가 가득한 학구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첫 번째 경기도 노마치 유카 선생님은 다문화수업으로 일본문화를 소개하면서 한국과 일본은 다르지만 마음은 같다고 하는 내용의 수업을 발표하셨습니다.

두 번째 중국 먼리리 선생님은 세계시민교육으로 멸종위기 동물에 대해 수업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 경기도 모리야마 미즈에 선생님의 발표는 올림픽과 여러 나라 국기에 대해 알아보고 미니 올림픽을 아이들이 준비하는 수업이었습니다.

네 번째 박가비니 선생님은 태국의 아이들이 하는 놀이를 소개하셨습니다.

다섯 번째 중국 이해영 선생님은 여러 나라의 열두 띠에 대해 소개, 동물장기놀이를 소개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정명숙 선생님은 중국어와 중국문화에 대한 수업을 하셨습니다.

이 공모전을 총괄해서 장혜원 교수님께서서는 발표된 수업들에 대해서 적절한 조언과 평가를 해주시고 발표하신 여러 선생님들께 격려를 해 주셨습니다.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장혜원 교수님 이하 많은 선생님들께서 적극 참여해 주셔서 동양생명배 수업연구공모전이 성황리에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일시

2018년 12월 8일(토)
10:00 ~ 13:00

장소

상도2동 주민센터

참석인원

30명(발표자:7명, 참관:23명)



동양생명배 교육수기 및 수업연구 공모전 시상식

일시

2018년 12월 26일(수)
10:00 ~ 11:10

장소

생명보험교육문화센터 3층

참석인원

생명보험사회공헌위원회, 동양생명, 한국리아, 심사위원 내빈 및 수상자



학생 멘토링

· 이나윤 선생님 ·

2018년도 다문화가정 학생들 대상으로 멘토링 활동을 했던 기억을 떠올려 소감문을 씁니다. 저는 5학년, 4학년인 학생들의 멘토로 활동을 했었습니다. 아이들이 저를 멘토로 삼고 잘 따랐고, 여러 가지 활동을 통해 새로운 분야에 도전하는 재미와 즐거움을 느꼈던 것 같습니다. 관심 분야에 관련 도서 구매,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한 저녁 먹거리 탐방, 한국의 관광 명소를 방문, 독서토론,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통해 한 단계 성실해지는 과정을 느꼈다고 한 것 같습니다.

5학년 학생의 경우 한부모 가정이다 보니 경제적 시간적 어려움이 있어서 문화 체험을 할 여유가 없는 환경에 자라는 학생입니다. 그리고 부모님이랑 대화하는 시간이 별로 없고 언어적 소통이 어려운 부분이 있었는데 멘토링 활동을 통해 같이 웃고 재미있는 시간을 갖게 되어서 좋았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노력하다 보면 좋은 결과가 있다는 것도 알았고 유익한 경험을 갖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4학년 학생의 경우 화목하고 좋은 부모님을 두었지만 다자녀가정이고 아버님이 사업이 많이 좋지 않는 상황 이었고 생활의 여유가 없어서 좋은 기회를 갖게 된 것을 아이도 부모님도 좋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멘토링 활동이 끝날 때 가장 많이 아쉬워했습니다. 아이가 고도비만이고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건강관리와 음식 섭취에 대한 얘기를 많이 나누게 되어 지식이 많이 쌓았을 겁니다. 그래서 건강을 위해서 노력하는 어린이가 된 것 같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있는 학교에는 멘토로 삼고 싶은 학생들이 많습니다.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도 큼니다. 그래서 계속 멘토가 되어 다른 아이들에게도 좋은 기회를 주고 싶고, 한국이 이렇게 좋은 나라라는 생각도 심어주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사 장학금

· 광문향 선생님 ·

한코리아는 일선 학교에서 다문화가정(중도입국) 아이들에게 직접적인 도움을 주는 인력의 필요성과 중요성을 인지함으로써 저희 다문화언어강사들의 역량강화를 위해 주제별 워크숍, 수업연구 발표회, 수업 공모전, 멘토링 활동, 야외학습, 장학금 제도 등 다양하고 유익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올해의 교사 장학금을 받게 되어 제가 원하는 '독서논술지도사' 자격증을 취득하였습니다. 교육청에서 주관하는 연수과정은 정기적으로 있지 않을 뿐더러 제한된 시간으로 심도 있는 연수는 어려우며 내용 또한 모두 만족스러울 수 없습니다. 개별로 공부하려면 일단 비싼 수강료로 인해 경제적으로 많은 부담이 될 수밖에 없어서 도전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초등학교에서는 동화책을 이용해 할 수 있는 수업이 많아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아 보고 싶었는데 한코리아에서 마침 장학금 혜택을 주셔서 제가 원하는 교육을 받게 되었습니다.

강의는 온라인으로 들을 수 있기에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아 일하면서 공부하는데 부담이 없었습니다. 재미있는 실무교육 중심의 다양한 독후 활동과 이론 수업으로 아이들에게 책읽기의 즐거움을 일깨워주고 통합적 사고력을 길러주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저의 전문성을 갖추는데 한걸음 더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또한 다양한 관련서적으로 교육이 끝난 후에도 수업연구를 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해주신 한코리아에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단순히 자격증 취득으로 끝나지 않고 현장에서 지금의 일에 접목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연구하고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에는 더 많은 분들이 장학금 혜택을 받아 다문화언어강사들의 역량강화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P R I Z E W O R K



교육수기 수상작



대 상 이서연

최우수상 소네에이꼬

우 수 상 오오쿠보미호

장 려 상 남경민

장 려 상 나유끼마사에

열 정 상 노마치유카





대 상

덕수중 교육수기

서울생활 몇 해째인가요? 서울생활을 하다보면 가끔 듣는 질문이다.

얼마 전 학교에서 단체로 뮤지컬 “빨래”를 관람했다. 지방이나 외국에서 올라와 서울 쪽방서 만난 사람들의 고된 삶이란 공통점으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선으로 연결되어 있다. 겉으로 보기에는 티격태격하기도 하지만 가장 서로를 위하는 이웃이다.

한국인도 서울에서는 여간 녹록치 않은 생활이다. 그런데 몽골, 필리핀서 일자리를 찾으러 온 외국인의 힘든 한국생활 이야기를 보며 다문화 학생들의 한국에서의 생활 또한 얼마나 힘들까? 새삼 느끼게 된다. 올해도 우리 중학교는 중도입국 베트남 남녀 학생 두 명이 왔다.

2학년인 프영안이라는 여자아이는 동그스름한 얼굴에 유난히 눈이 반짝반짝 빛나는 예쁜 학생이다. 프영안은 공부에 대한 열정도 강하고 자존심도 센 아이였다. 이미지도 한국인과 비슷하여 말을 걸지 않으면 외국인 학생으로 보이지 않았다.

3월에 입학 후 프영안은 점심 먹으러 가는 것을 제일 싫어했다. 이미 반배정이 끝나고 여자애들은 벌써 두 세 명씩 좋아하는 단짝친구들로 정해져 있어서 그 틈에 끼워 놀기는 쉽지 않았다. 담임선생님께서 두 명의 친구를 붙여주었는데 말이 안 통하다보니 서로 눈치만 보며 잘 어울리지는 못했다. 밥 먹으러 갈 때도 친구들이 조금만 늦으면 프영안은 기다리지 않고 혼자 가곤 했다. 그리고는 친구들이 자기랑 밥 먹기 싫어한다고 조심스레 와서 말했다. 친구들한테 확인해보니 프영안이 기다려주지 않고 종종 혼자서 먼저 간 거라고 하였다. 프영안이 늦을 때는 친구들이 기다려주는데

프영안은 절대로 친구들을 기다려주지 않고 먼저 가서 밥을 먹는다고 하였다. 다시 몇 번을 잘 다독여서 친구들과 함께 밥을 먹으러 가나 싶더니 혼자서 다니는 게 더 편하다고 하였다.

어느 날 프영안은 점심밥을 먹지 않고 귀국자반으로 뿌루통해서 들어왔다.

“프영안, 밥 안 먹었니?”

“저 싫은 친구가 있어서 밥 안 먹을래요.”

“잉? 굶으면 안 되지? 어서 가서 먹자꾸나. 선생님이란 말이 가자.”

“저 이미 식판에 받은 밥 다 버렸어요!”

담임선생님께 여쭙봤더니 자기 옆에 싫은 여자 친구가 앉았다고 별떡 일어나 밥을 잔반 처리하고 교실로 올라온 것이다. 그 친구는 평소에 프영안이 뭐 물어도 잘 대답해주지 않으니 프영안도 그를 미워했던 것이다.

“프영안, 우리 다 서로 어울려 사는 거야, 네가 싫어한다고 밥까지 굶으면 누가 손해겠니? 서로 조금만 양보하자꾸나. 다음부터는 이러면 안 돼.”

나는 프영안에게 간식을 꺼내주며 한참을 다독였다. 그 후부터 프영안은 귀국자반에 오면 늘 인사로 나를 안아주고 수업이 끝나고 헤어질 때도 꼭 안아주었다.

어머니의 재혼으로 한국에 오게 된 프영안은 새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는 듯했다. 입학 첫날에도 어머니 대신 새 아버지가 학교에 오셔서 학교생활에 대해 꼼꼼히 알아두고 가셨다. 얼마 전 아버와의 카톡 내용을 얼떨결에 본 적이 있었다.

• 이서연 다문화언어강사 •



“예쁜 딸, 먹고 싶은 거 없니?”

“아빠, 라면 사주세요.”

“라면 말고 또 없니? 우리 맛난 거 먹자, 학교 끝나고 조심히 와, 예쁜 딸~^^”

아빠가 프영안을 잘 챙겨주셔서 정말 다행이다. 얼마 전에 어머니 뱃속에 동생이 생겼다고 한다. 나는 말을 꺼내는 프영안의 눈치를 살폈다.

“선생님, 동생이 남자아이래요. 너무 좋아요.” 프영안은 동생에 관해 이야기하며 밝게 웃었다. 나는 프영안의 마음이 울적할 줄 알았는데 가족생활은 화목해 보여 나의 걱정은 다소 사라졌다. 어머니와 아버지는 상봉역 근처에서 밤늦게까지 베트남쌀국수 가게를 운영한다. 프영안은 하고 후 늘 가게 가서 일손도 돕고 가게에 달린 방 안에서 공부하다가 일이 끝나면 부모님과 함께 집에 온다고 하였다. 그래서 피곤할 법도 한데 한국에 교실에 오면 제일 열심히 국어수업을 따라 했다. 한국어 교실에 올 때는 휴대전화 소지가 가능하게끔 하여 모르는 단어를 책으로 만들어 휴대전화로 여러 가지 뜻을 찾아 꼼꼼히 적어놓곤 하였다. 한국 학생들도 어려워하는 말들을 사전에 찾아가며 곧잘 따라했다. 워낙 열심히 따라 해서 한국어 습득능력이 다른 학생들과 비교해 빨랐다.

프영안은 꿈이 변호사였다. 베트남에서는 거의 반에서 모든 점수가 올백 맞을 정도로 tap이었다고 자랑삼아 얘기하다가 한국에서의 학습 생활이 막막했는지 이내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YTN TV 프로그램에서 외국인이 한국에서 사는 것을 다루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운이 좋게도 프영안 가족이 당첨되었다. 학교공부를 끝나고 부랴부랴 가게로 프로그램 찍으러 오라는 아버지의 전화를 받더니 프영안은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카메라 앞에서 부끄러워요, 그래도 TV에 나오면 베트남 가족여행을 무료로 보내줘요, 잘 찍고 올게요. 선생님, 다음 주 TV 꼭 보셔야 해요.” 프영안은 씩스러운 듯 했으나 즐거워했다.

어느 날 한국어 수업을 가르치다가 ‘사이좋게’라는 단어를 찾아보게 되었다.

“체육 시간에 친구들과 사이좋게 피구게임을 하였다.”라고 나는 설명해주었다. 그런데 갑자기 프영안이 눈물을 글썽이며 “친구들이 저랑 안 놀아요.”라며 저를 당황스럽게 하였다. 나는 프영안이 한국어 실력이 많이 좋아져서 학교생활도 잘 적응된 줄로 알았다. 알고 보니 최근 일이 아니고 입학 후 얼마 지나지 않아 생긴 일이었다. 프영안이 피구 규칙을 잘 모르고 소통이 어렵다 보니 친구들이 같이 놀아주지 않았던 것이다. 그때 일이 생각나서 갑자기 울컥했던 것이었다.

나는 프영안의 공책에 “빨래” 뮤지컬 노래의 인상 깊었던 글을 적어주었다.

“빨래가 바람에, 빨래가 바람에, 제 몸에 맡기는 것처럼 인생도 바람에 맡기는 거야. 시간이 흘러 빨래가 마르는 것처럼 슬픈 네 눈물도 마를 거야. 프영안, 너의 인생은 너의 것이야, 힘내고 우리 잘 해보자. 사랑해! ~”

프영안은 나를 꼭 안아주었다. 바람이 불면 마르는 빨래처럼, 그 애의 근심, 걱정도 날아가 버리길 바라면서.





최우수상

다문화의 싹을 잘 자라게 하는 역할

내가 근무하는 학교는 1919년에 개교한 유구한 역사와 전통이 빛나는 학교이다. 새로운 시대를 맞이하여 요즘 대한민국에 많은 외국인들이 살고 있다. 이 조그마한 시골 학교에도 약 30명의 다문화 아이들이 다닐 거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을 것이다.

이제 100년의 역사를 지닌 학교건물의 외관공사가 시작되었다. 오래된 갈색 벽들을 부수어 새 단장하려고 하는데 하얀색 패턴에 층마다 노란색, 초록색, 하늘색의 그라데이션으로 아름답게 선을 그은 모습을 보니, 단일민족을 외치던 나라에 다문화의 빛이 들어온 것을 표현하는 것 같아서 가슴이 설레는 느낌이 든다.

나는 이 초등학교에서 5년째 근무하고 있다. 다문화 아이들과 만나는 것은 물론 어머니들이 찾아오실 때면 아주 반갑다. 비록 선생님과 학부모의 관계이지만 같은 다문화가정이라는 인연으로 이 나라에서 만났구나 싶어서 서로 께안고 악수하고 하이파이브를 한다.

어머니들은 베트남, 캄보디아, 필리핀, 중국, 일본, 몽골에서 오신 분들이다. 동남아에서 오신 분들은 애교 있는 표정으로 인사를 해주시는데 직장 다니시라 아이들 키우라 바쁘게 열심히 생활하신다. 중화권에 오신 어머니들은 보기에 한국인과 별 차이가 없으시고 교육열이 높은 편이다. 일본 어머니들은 아이들이 친구들이랑 잘 지내는지, 수업태도가 좋은지 신경을 쓰시는 것 같다. 나라마다 교육에 대한 생각이 다르지만 한국의 교육문화를 이해하고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고 있다.

· 소네에이코 다문화언어강사 ·

■ 중국에서 온 연호 이야기

연호는 중국에서 온 4학년 아이이고 공부를 잘하며 활발한 성격이다. 그런데 가끔 친구랑 잘 놀다가 기분 나쁜 일이 있으면 화를 참지 못해 울고불고 큰일이 난다. 특히 게임을 하면 반드시 반칙해서라도 이겨야 하고 결국 친구들과 싸워 외톨이가 돼버린다. 인정받고 싶어서 이기려고 하지만 외톨이가 되니 억울해서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한다. 자신에게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는 있으나 승부에 대한 집착이 심한 모양이다.

어머니는 중국에서는 한 자녀 정책 때부터 자녀를 황제처럼 키워 제멋대로 행동하는 아이가 많아졌다고 하는데 시급히 고쳐야 하는 부분이다. 또 그 친구의 가정환경을 보니까 잘못을 고쳐주는 사람이 없는 것 같다.

그 아이에게는 마음이 힘든 일이 있으면 쉬는 시간에 선생님을 찾아오라고 했더니 매일같이 점심시간에 찾아왔다. 짧은 시간이지만 언제나 똑같은 자리에서 자신을 이해하고 따뜻하게 맞이해주는 선생님을 보면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순한 마음으로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다. 항상 자신의 탓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는데 마음을 컨트롤할 수 있게 조금씩 노력하자고 이야기 한다.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선생님이 항상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도 다문화강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 경민이 이야기

내 작은 교실에 경민이라는 남학생이 오랜만에 찾아왔다.

“아, 여기구나! 오랜만에 왔어요. 조금 분위기 달라진 것 같은데요?”

키가 많이 커졌고 몸이 튼튼해졌으며, 표정이 밝아지고 어른스러워졌다. 긴장하면 더듬던 습관은 전혀 없어지고 대화를 나눌 때는 눈을 마주치며 이야기하니 놀라웠다.

이 아이가 병설 유치원에 다닐 때, 유치원 원장님이 새로 온 다문화강사인 나에게 일주일에 세 번 아이를 맡기셨다. 아이의 어머니는 베트남인이시고, 아버지는 한국인이신데 엄격하신 분이라고 하셨다. 부모님이 일 때문에 아이들을 못 챙기신 것 같았다. 첫 번째 수업시간, 이야기는 듣고 있었지만 너무 당황스러웠다. 경민이가 산만해서 조금도 가만히 앉아 있지 못했기 때문이다. 혼자 중얼거리면서 불안해서 그런지 바로 교실을 나가고 싶어 했다.

유치원 교실에서도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눈을 마주치지 않으려고 했다. 나는 이런 정서적으로 어려운 아이를 접한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 막막했다. 이것저것 시도해봤지만 한 달 정도 지났는데도 발전이 없었다. 한글이나 숫자라도 가르쳐야 되는데 학습지를 펴도 연필로 의미 없는 낙서를 할 뿐이었다. 옆에 앉아서 한글씨라도 쓰자고 재촉

해도 못 쓰고 지나가기만 하는 시간이 너무 아까웠다.

이렇게 시간 낭비된다면 오히려 다른 아이를 가르치는 게 좋을 텐데... 나는 한 명의 아이와 40분 동안 같이 있는 것도 어렵고 고통스러웠다. 점점 우울해지고 미칠 지경이었다.

나는 유치원 원장님을 찾아가 이 아이의 수업에 대해 상의하려고 했다. 솔직히 말하면 상의라기보다 그 임무가 어려워니 가능한 그만두고 싶다고 전달하려는 결단을 했던 것이다. 나는 조심스럽게 원장님에게 경민이에 대한 내 생각을 이야기했다.

그런데 원장님은 뜻밖에도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오히려 미소 지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너무 어려워하지 마세요. 같이 옆에 있어주기만 해도 도움이 됩니다. 누가 옆에서 관심 가져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장님은 격려해주셨지만 나는 무슨 말인지 납득이 되지 않은 채 할 수 없이 계속 임무를 이어가기로 했다.

어느 날, 아무 생각 없이 경민이의 손을 잡고 학교 주변을 한 바퀴 돌아보기로 했다. 마당에는 꽃, 풀초, 조릿대 등 다양한 식물들이 있고 오래된 학교라 그런지 화단 통로에는 큰 개미들이 많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어서 관찰하는데 심심하지 않았다. 솔방울이나 도토리를 주워 나뭇잎을 맞추는 놀이도 같이 해봤다. 담 넘어 학교로 들어오는 고양이들 나무 뒤에 숨어서 보기도 하고 주차장으로 날아오는 까치들을 보는 것



도 신선했다. 학교 건물과 체육관, 운동장으로 계단으로 이어져있는 구조가 재미있는 놀이터시설 같았다. 한 바퀴를 돌고 마지막으로 도착한 화단에는 저학년들이 손질한 꽃들이 아기자기하게 피어 웃고 있는 것 같았다.

신기하게도 그때 평상시의 경민이의 불안한 모습은 아무데도 없었다. 오히려 내 손을 잡으면서 보이는 풍경에 관해서 궁금한 것을 묻고 계속 이야기를 이어갔다. 경민이와 처음으로 소통하는 느낌이 들어 마음이 편안해졌다.

교실에 돌아가려고 했을 때 마침 유치원 원장님을 만났는데 웃으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경민이는 참 좋겠다~ 선생님이랑 산책 하는구나~”

그때까지 교실에서 공부를 안 하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던 나는 원장님의 미소를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다.

‘앉아서 수업하는 것만이 교육이 아니구나. 아이에 눈높이에 맞게 필요한 교육을 해줘야겠다. 그래, 지금 이 아이에 제일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찾아보자!’

아무 생각이 없이 학교주변을 돌아봤지만 사물에 흥미를 갖고 선생님과 소통하려고 하는 아이의 모습을 보게 돼서 내 잘못을 깨달았다. 새로운 학교에 오면서 다문화 아이들을 교육해서 결과물을 남겨야 한다는 초조함 때문에 갈등했던 것 같다. 새로 온 다문화강사가 제대로 가르치지도 못한다는 평가 받기 싫어서 불안했던 것이다.

나는 아이와 소통을 하지 않고 학습지를 꺼내 진도를 나가려고만 했던 것을 후회했다. 그것은 경민이를 위한 수업이 아니라 나를 위한 수업이었던 것이다. 아직 정서적 발달이 부족한 아이를 입학할 때까지 조금이라도 나아지게 해줘야 한다는 원장님의 생각을 겨우 스스로 알게 된 것에 감사한 생각이 들었다.

경민이는 앉아서 공부하는 것 보다 사람과 소통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스스로 뭔가를 하려는 의욕을 갖게 해야 했다. 가정 환경에 대해 좀 더 알아보니 부모님이 일하셔서 아이들을 방치하는 경향이 있고 밤늦은 시간까지 아이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 관심을 가져줄 상황이 아니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아이가 학교에 매일 등교하는 것도 신기할 정도이다. 집에 아무도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등교하는 것인지도 모른다.

또 등교 안하면 혼나니까 나갈 수밖에 없었던 것일 수도 있다. 어쨌든 정서적으로 안정될 수 있게 신경을 써주어야 한다.

그 때부터 경민이에 대한 교육목표가 분명해졌다.

우선 경민이가 좋아하는 것을 찾기로 했지만 본인도 잘 몰라서 쉽지 않았다. 그래서 보통, 또래의 남자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을 이것저것 물어보던 중 공룡을 엄청 좋아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공룡에 대한 사이트에 들어가 색칠공부를 할 수 있도록 뽑아주었다. 경민이는 공룡 이름을 많이 알고 있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 설명하는 정도라 너무 놀랐다.

좋아하는 것을 외우고 설명할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것이다. 설명을 잘하면 칭찬을 많이 해주었다. 도서관에서 공룡도감을 빌려서 같이 봤고 그 김에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는 방법을 알려줬다. 공룡을 색종이로 접어보고 공룡이름을 한글로 써보니 자연스럽게 한글 공부가 되었다. 그림을 그려서 완성된 작품을 화이트보드에 붙여주고 다른 아이들이 볼 수 있게 했다. 친구들의 칭찬을 받으니 기뻐하고 자신감이 생겨 눈빛이 많이 달라진 것이 보였다. 그렇게 해서 이전엔 고통스럽다고 생각했던 40분이 금방 지나갔다.

연구실에 있는 나무 쌓기 놀이도 즐거워했다. 크고 멋진 궁전을 만들어 완성되면 사진을 찍고 엄마에게 보내줬다. 다양한 모양의 궁전을 완성시켜 사진 찍고 모아놓았다. 사진을 본 가족들이 칭찬해주니 전과는 얼굴이 많이 달라지고 있었다. 그렇게 1년을 지내다보

니 여러 활동에 흥미를 가져 공부도 조금씩 하는 아이가 되었다.

한국에는 지금 다문화의 싹이 많이 트고 있다. 우리는 어떤 싹이라도 잘 자라도록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고 보호하며 응원해주어야 하는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다. 어려운 아이가 있으면 우선 상황을 잘 파악하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야 한다. 주변과 연계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아이를 지원해야 한다.

주변의 눈치를 보지 않고 자신을 믿고 아이에게 필요한 교육을 찾아서 해 주어야 하고 바로바로 결과가 나타나지 않아도 정성을 들여 즐거운 마음으로 임하면 반드시 돌파구가 생길 거라고 믿는다.





우수상

항상 인상에 남는 수업을 위한 새로운 도전

창북중학교에서 근무한 지 3년째인 올해는 다문화 학생을 대상으로 역사나 국어, 도덕 등 평소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교과 공부 지도와 더불어 교감선생님 아이디어로 한국인 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유 학기주제 선택 수업'을 새로 맡게 되었다. 이것은 다문화 국제 이해교육 수업으로, 초등학교에서는 다문화언어강사가 가르치는 분야인데 중학교에서는 각 교과목 수업을 진행하기에 바빠서 규칙적으로 다문화 국제이해 교육까지 가르칠 여유가 없기 때문에 진행하기 어렵다. 우리의 본직인 다문화 국제이해교육 수업을 중학교에서 한국인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게 되어 우리의 연구와 능력을 공개할 수 있는 기회가 온 것 같아서 기뻐다. 다문화 국제이해교육은 세계시민교육 중의 일부분이고 그 이외는 인권, 환경, 평화를 주제로 수업을 전개한다.

2015년 뉴욕에서 개최된 제70차 UN 총회에서 발표된 국제사회 공동의 약속으로 2030년까지 달성할 '지속 가능발전 목표 - 17개의 목표와 169개의 세부 목표'를 명시한 것이 현재 이루어져 있는데 우리가 다문화언어강사로서 그 목표를 향해 활동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이라는 것이 정말 영광이고 보람을 느낀다. 하지만 외국인인 우리는 모국에 대한 수업은 누구보다도 잘 가르칠 수 있지만 나머지 다양한 문화를 가르치기 위해서는 엄청난 공부와 정보 수집이 필요하고 연구에 시간을 투자해야한다. 세계시민교육이라는 넓고 무거운 주제를 교재도 없이 가르친다는 것은

출구가 없는 터널에 들어가는 듯했다. 그렇지만 멈춰서서 아무 결과도 낼 수 없기 때문에 다양성 문화에 대한 수업 연구와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교재, 그리고 색다른 경험 수업을 진행했고,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고 나름대로 만족한 성과를 냈다고 생각한다.

자유학기 세계시민교육을 위한 다양성이 넘친 수업과 교재

총 28번 수업 중 16번 수업은 내가 말았고 좀 더 변화나 다양성이 있는 수업을 하기 위해 인도네시아, 인도, 몽골에서 오신 다문화언어강사에게 협조를 요청해 각 문화를 소개할 수업도 진행했다.

우선 첫 시간에는 일본에 대해 가르치기로 했다. 일본어로 자기소개를 할 수 있게 하고 일본어로 이름을 쓸 수 있게 했다. 일본에서 식사 때 절대 하면 안 되는 매너와 연중행사, 일본 전통놀이를 다양하게 소개했다. 수업을 진행하면서 느낀 점은 일본과 한국의 거리가 가까워 여행으로 일본을 다녀온 학생들이 많았다.

또한, 일본 문화에 관심이 있어서 만화, 애니메이션, 닌텐도 게임기, 음식 등 아는 것이 많아 수업 중 내가 하는 질문에 학생들 서로가 대답하려 하는 적극적인 태도를 보여 수업의 분위기가 끝까지 고조되어 있어서 가르칠 보람을 느꼈다. 냉정하게 되돌아보고 순한 마음으로 다시 교실로 돌아갈 수 있다.

• 오오쿠보미호 다문화언어강사 •



세계시민교육

일본 문화 수업

인도네시아 전통의상 입어보기

인도 문화 수업

항상 자신의 탓으로 인해 문제가 생기는 것을 본인도 잘 알고 있는데 마음을 컨트롤 할 수 있게 조금씩 노력하자고 이야기 한다. 이해해주고 응원해주는 선생님이 항상 같은 자리에 있다는 것, 그것도 다문화강사의 중요한 역할이다.

두 번째 수업에서는 세계시민교육을 했다. 첫 수업과 달리 약간 학생들의 호기심을 떨어뜨리는 내용이 아닌가 걱정했다. 17개의 지속 가능발전 목표의 내용들은 현재 중학생들에게 그것들을 해결하기 위한 활동, 노력에 대해 아직 친근감을 못 느끼는 것 같은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17개 이외에 18번째 목표를 학생들과 토론하는 기회를 만들기 위해 학생이 생각하기에 쉽고 훨씬 친근감을 느끼고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는 공간으로 '사회문제'를 넣었다.

여러 나라에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아동학대, IT 중독, 교통사고, 성추행, 폐기물, 배설물 등의 문제를 살펴보고 우리나라의 사회문제인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사교육 등의 문제와 비교해 공통점과 차이점을 발표하고 그 해결법을 생각해보자는 목표를 세우고 토론한 유익한 수업이었다.

지구촌의 한 사람으로서 문화 다양성을 존중하는 마음과 태도를 키우며 공공 에티켓을 지키는 세계시민의 인식을 갖추자가 목표였다. 아직 중학생들에게 와닿지 않은 17개의 목표를 생각하는 수업보다 내가 예상한대로 훨씬 접하기 쉬운 주제로 수업이 진행되고 생각보다 많은 의견이나 질문이 나와 알찬 시간이 되었다.

세 번째 수업은 전 세계에서 아주 심각한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문제'에 대해서 진행했다. 여러 나라의 지구온난화에 대한 대책을 살펴보고 그 문제에 대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지를 생각하는 시간이다. 학생들은 상식적으로 '환경문제'의 원인은 알고 있어도 우리나라나 세계의 다른 국가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는 알지 못하여 여러 국가에서 진행 중인 노력들을 보여주니 인상에 남은 수업이었다고 말했다.

특히 마지막에 소개된 이산화탄소를 활용하자는 스위스의 대책은 일반적으로 많은 국가들이 이산화탄소를 줄이려고 노력하는 모습과 상반되어 모든 학생들의 관심을 이끌었다. 또 스페인 음식물 쓰레기를 줄

세계시민교육
사회문제 수업



이러는 노력으로 동네에 냉장고를 두는 '푸드 share' 시스템을 사용하는 모습을 보며 학생들은 장난으로 독을 넣었을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의견이 나왔고 반대로 생각보다 시민의식이 높고 치안이 좋은 나라이고 사람들의 인심이 좋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리고 생활력이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자는 기부 목적으로 세운 공짜 슈퍼가 호주에서 세계 처음으로 열렸다고 하니 학생들이 그 기발한 생각과 운영방법에 너무 궁금해 하고 한국에도 생기면 좋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네 번째 세계시민교육의 분야수업으로 마지막 수업답게 UN의 최대 목표인 평화에 대해 수업으로 최종 마무리했다. 세계 약 72억인 인구 누구든 평화를 원하는데도 불구하고 왜 사람들은 종교, 문화, 민족, 사상이라는 문제 때문에 서로가 다투고 자유를 침탈하고 전쟁을 일으키는 지 생각해보자는 수업을 전개했다.

우선 과거에 노벨평화상을 받은 위인을 소개하고 상을 안 받아도 나라의 평화를 위해 헌신한 코트디부아르의 스포츠 선수인 '디디에 드로그바', 세계 제일 가난

하다고 하는 우루과이 전 대통령인 '호세 무히카' 이야기 등을 소개했다.

약간 철학적이거나 중학생한테는 좀 어려울 수도 있지만 냉혹한 현실만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희생하며 평화를 외치는 사람들도 많다는 것을 알려주고 우리도 언젠가 얼마든 평화를 위해 노력할 수 있는 그런 한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이야기를 했다. 넉넉하고 평화로운 대한민국에서 객관적으로 생각을 나눌 기회는 좋았다고 생각했다. 학생들은 잘 모르겠다는 의견이 대부분이었지만 자유를 빼앗기는 냉혹한 현실을 피할 수 없는 나라에 대해 의식을 하게 되는 시간이었다.

색 다른 경험 수업 1

학생들이 앉아서만 수업을 하면 지루할 것 같아서 '일본 사누끼 우동 만들기' 수업도 했다. 아마 우동을 만들 때 처음 반죽부터 해 본 학생들이 없을 것 같아 재미삼아 시도했는데 생각보다 학생들이 흥미를 느끼며 맛있다고 반응이 좋았다.



타케우마(죽마타기)

켄다마 놀이

사아타안다아기시식

후쿠와라이 놀이

색 다른 경험 수업 2

우리가 어렸을 때는 밖에서 놀 것이 많았다. 추운 날에도 밖으로 나가 뛰어놀고 놀잇감을 만들기도 하면서 자연스럽게 창의력을 키웠다. 예전에 비해 현재는 너무 편하고 좋은 세상이 되었다고 하지만 일장일단이다. 요즘 학생들은 게임이나 핸드폰이 있으니까 유혹에 빠질 수밖에 없다. 없으면 없는 대로 오히려 학생들이 옛날의 우리들처럼 활동적이고 신나는 시간을 원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그래서 일본 전통놀이인 '후쿠와라이'와 '타케우마(죽마타기)'와 '켄다마'놀이를 알려줬다. '후쿠와라이'는 눈을 가린 후에 얼굴 윤곽만 그린 종이 위에 눈썹·눈·코·귀·입을 오린 쪽지를 얹어 놓고 완성된 형태의 익살스러움을 즐기는 설날 놀이 중 하나다. 넓은 공간인 운동장에서 '타케우마(죽마타기)'와 '켄다마'놀이를 활기차게 놀고 난 후에 학생들이 배가 고플까 봐 내가 점심때 가사실에서 미리 만들어놓은 오키나와 도넛인 '사아타 안다 아기'를 먹으며 마지막 수업을 마쳤다.

창북중학교에서 보낸 유익했던 3년

3년째 맞은 창북중학교, 1학년 때부터 데리고 있었던 다문화가정 학생이 벌써 3학년이 되었다. 첫 해는 일본, 중국, 우즈베키스탄, 필리핀, 몽골, 베트남에서 온 다국적인 학생을 지도해야 했지만 해마다 졸업율

시키고 올해는 일본, 필리핀, 우즈베키스탄 3명이 남았다. 3명만 남았지만 업무를 줄이지 않고 오히려 더욱 깊이 지도하려고 노력했다. 시간이 지나면서 학생들과 사제지간보다 모자, 모녀 사이처럼 친해져서 잘 통하여 좋았다. 역시 유연성이 있는 젊은이답게 3년이라는 시간 동안 날이 갈수록 학교생활에 적응하고 친구도 사귀어서 의사소통을 잘하는 모습을 지켜볼 수 있어서 흐뭇했다.

하지만 갑자기 말은 세계시민교육 수업을 어떤 내용으로 학생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관심을 이끌어낼지 고민해야만 했다. 지금 시대에 세계시민교육은 정말 필요하고 젊은이들이 많은 것을 배워야 하는데 현재 학생들에게는 와닿지 않은 문제들일 것이다.

세계를 넓게 보는 눈을 가지기 위해 세계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지금 접하고 있는 난민 문제, 환경문제, 아동노동, 전쟁이라는 문제들을 생각해봐야 하는데 학생들은 해외여행만 다니려고 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식량이 풍부하고 심각성을 못 느끼는 대한민국에서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을 의식하면서 살 필요성을 학생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쉽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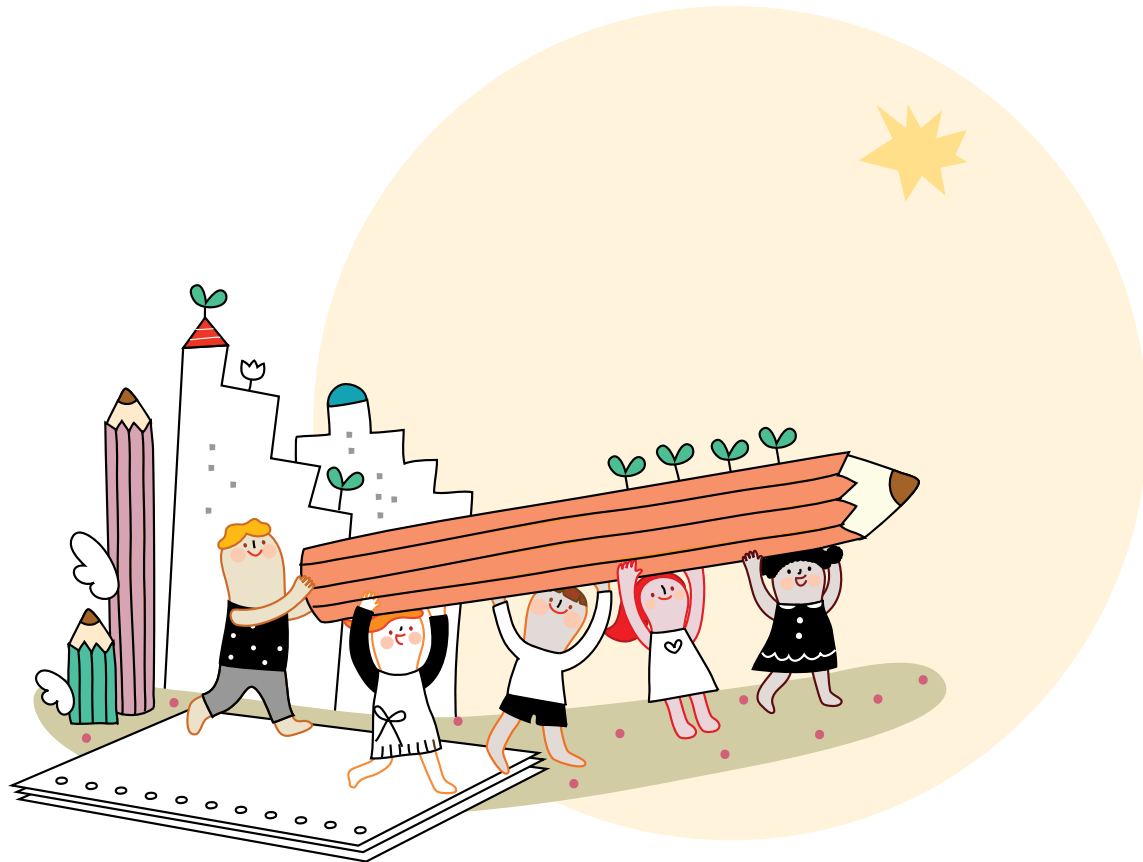
왜냐하면 요즘 학생들은 워낙 게임을 좋아하여 게임에 빠지거나 핸드폰을 손에서 놓지 않고 집과 학교, 집과 학원으로 왔다 갔다 하며 엄마가 해준 밥을 먹고 살 수 있는 풍족한 환경에서 살고 있다. 그래서 다른 나라가 어떻게 되든 요즘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든 게다가 인권, 환경, 평화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



야 할 만큼 선진국인 한국에서는 남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 환경에 있는 학생들한테 지속 가능발전 목표인 17개의 목표에 대해 공부하자고 해도 주제가 딱딱한데 어떻게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를 해줄까 심사숙고했다. 그 노력과 연구의 결과가 위에서 소개한 인상에 남는 PPT 교재들이다.

서울 이외 지역의 다문화언어강사들은 시간제 근무로 바뀐 지 벌써 몇 년이 지나 서울에 있는 다문화언어강사들의 입장도 매년 불안해하고 있고 사상누각 상태라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위기를 모면하려면 교육청에서 지시한 세계시민교육을 엄숙히 받아들이며 한국 학생의 미래를 위해 2030년까지의 목표를 책임감을 가지고 달성시키도록 항상 노력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



장려상

즐거움의 여유를 주는 교실

· 남경민 다문화언어강사 ·



아침 일찍 출근하여 교실에서 따뜻한 커피를 마시고 수업에 들어갈 준비를 하며 일을 시작합니다. 그 이후에 쿨 메신저를 통해 3학년 3반 담임선생님과 교감 선생님께서 출근하신 것을 확인합니다. 우리 학교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보다 외국인가정의 학생들이 많습니다.

저는 다문화가정의 학생들에게는 학교생활 적응 및 한국어습을 돕기 위한 학습지도, 일반학생들에게는 다문화 학생들과 편견 없이 소통하고, 다문화에 대한 인식과 지식을 넓히기 위한 다문화이해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제일 어려웠던 부분은 언어권이 다른 여러 학생들에게 맞춤교육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러시아, 영어, 독일어, 몽골어로는 그래도 어느 정도 의사소통이 되지만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로는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한국에서 태어난 학생들의 학부모들은 대부분 모국어를 사용하지 않고 한국어만 교육하려고 하다 보니 학생들의 모국어 유지와 발달에 어려움이 생깁니다. 이러한 부모의 언어능력부족이 학생들에게 크게 영향을 주어 학습 부진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베트남 다문화가정인 한 학생의 부모님은 학생의 알림장을 확인해주지 않았고, 담임선생님께서도 부모님과 상담하고자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베트남 출신인 친구의 도움으로 어머니께 편지를 보내 학교로 모실 수 있었습니다. 어머니께 우리학교를 소개하고 함께 시설 등을 둘러보며, 한국의 초등학교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알림장을 확인할 때 모르는 단어가 있을 경우 스마트폰의 베트남 사전을 활용하여 단어를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고, 준비물을 포털 사이트에 검색해서 찾는 방법을 이해한 후에 앞으로 준비물을 잘 챙겨주신다는 약속을 하고 댁으로 돌아가셨습니다.

다문화 또는 외국인가정의 학생이 있는 학급 담임 선생님들과 학기 시작하자 만나 뵙고 학생의 학교 생활과 학습태도의 대해 서로 의견을 나눕니다. 그리고 외국인가정의 학생들이나 중도 입국학생들은 의식주 면에서 부모나 문화와 생활습관이 달라서 한국어가 서툴고 학교생활 적응에도 어려움을 겪기 때문에 어디서부터 어떻게 지도해야할까 고민에 빠졌을 때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저에게 다가오는 학생들의 모습이 앞으로 제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깨달음을 주었습니다.



1학년 여학생에게 친밀감 표현을 뽀뽀로 하려고 줄 줄 쫓아다니는 외국인가정의 남학생을 담임선생님과 함께 상담하고, 반에서 다문화이해 교육도 실시했습니다.

또 다른 4학년 다문화가정의 남학생 중에 반 친구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상한 냄새가 난다고 놀림을 받아 항상 혼자서 다니는 친구가 있었습니다. 새로 오신 담임선생님을 만나 학생의 가정에 대한 기초조사를 함께 알아보고, 현재 학교생활과 학습태도의 대해 조사한 후에 엄마와 아빠가 헤어진 후에 엄마가 그리웠던 마음, 누군가의 따뜻한 손길과 위로를 기다리는 기대, 학생을 바라보는 관심의 필요를 알게 되었으며 선생님의 따뜻한 관심, 반 친구들의 좋은 분위기를 잘 이루어지도록 다 함께 나섰습니다. 이러한 과정들을 통해 좋은 학교와 즐거운 교실은 다 함께 만들어가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유학비자로 부모님을 따라 몽골에서 5학년을 2학기 중간까지 다녔다가 온 남학생이 전학을 왔습니다. 한국에서는 2학기가 시작하지도 않았는데 몽골에서 2학기 생활기록부를 작성한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몽골에서는 9월이 새 학기 시작이라 한국과 6개월 차이가 납니다.

한국어를 전혀 모르는 상황이라 4학년으로 학년을 내려 반 배정을 받고, 교실로 함께 걸어가던 중에 “전학 온 첫날의 기분이 어때?” 물어보았습니다. 학생이 생각도 하지 않고 바로 “너무 좋아요.”라고 말하여 웃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전학 온 학생의 대해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바로 자기소개를 해보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이 한국어로 “안녕하세요.” 라고 말을 시작하자 다른 학생들이 너무 궁금한 눈으로 바라보았습니다.

그 이후에 바로 몽골어로 “한국에 와서 처음으로 여러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기쁩니다. 앞으로 나랑 잘 지냈으면 합니다.” 라고 말을 했고, 학생들은 환영의 의미로 큰 박수와 웃음을 보내주었습니다. 담임선생님께서 더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라고 하자마자 많은 학생들이 손을 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몽골 친구에게 여러 질문을 했는데

“우리 학교에 처음 오니까 어때?”

“짱 좋아요.”

“한국에 오니까 느낌이 어땠어?”

“생각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었어.”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어?”

“여학생, 남학생 다 함께 나랑 잘 지냈으면 좋겠고, 한국말을 많이 알려줘.”

이렇게 중도 입국한 몽골 남학생의 학교생활이 시작되었고, 저는 국어, 수학, 도덕, 사회, 과학 시간에 들어가서 협력수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수업이 끝나고 다문화교실에 와서 열심히 한글을 쓰고, 읽고, 집에서 유학생 엄마와 함께 한국어공부를 했습니다. 남학생의 항상 밝은 얼굴, 씩씩한 모습, 똑똑한 말투 정말

긍정적인 생각, 활발한 행동을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학생의 언어 습득은 아주 빨랐고, 흥미 있게 학교생활을 하고, 협력 수업 중에 손을 들고 발표를 하기 시작해서 몽골어로 대답하면 제가 한국어로 통역하여 대답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저를 찾아와서 체육시간이 너무 싫다고 말했습니다. 알고 보니 피구, 발야구, 축구를 하는 방법을 잘 모르고, 달리기를 할 때도 힘들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같은 반 체육을 잘하는 남학생들에게 몽골 친구와 함께 중간 놀이시간, 점심시간 때 함께 놀고, 놀이 방법을 알려주면 친구가 체육 수업에 흥미를 가질 것이라고 이야기해주었습니다. 이제 학생이 중간 놀이시간에 뛰고 오면 땀범벅이 되어 교실에 돌아옵니다.

그리고 학생이 음악에 소질이 있는지 아리랑을 소금으로 연습을 잘해서 수행평가도 잘 보고, 학교의 초등학생 중창단에도 합격하고 지금도 열심히 다니고 있습니다.

“네, 학교 정말 좋아요.” 라는 학생의 말에 큰 기쁨이 담겨있습니다. 따뜻한 담임선생님, 분위기가 좋은 교실, 즐거움과 행복이 가득 찬 친구들이 있어서 한 외국인가정의 학생이 이렇게 학교생활에 빠르게 적응하고, 한국어를 너무나 좋아하고, 학급 친구들과 잘 어울리는 모습을 보며 저도 행복함을 느낍니다.

한국어가 미숙한 학생들의 한국어 지도, 학습부진 학생들을 맡게 되면... 다문화언어강사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장려상

다문화언어강사 교육수기

저는 3년 동안 학생 멘토링에 참가 했습니다. 제가 지도하는 학생에게 금전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시작했지만 매달 보고서를 쓸 때는 ‘내년에는 하지 말아야지’라는 생각이 들곤 합니다. 그러나 지원을 받은 학생어머니에게 고맙다는 인사를 받고 “내년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소리를 들으면 또다시 신청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첫 해는 베트남인 어머니와 다리가 안 좋으신 한국인 아버지를 둔 2학년 여학생을 대상으로 신청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같이 사는 할머니께서 저와 단둘이 나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대상자를 바꿀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있으실 것 같았는데 아쉬웠습니다.

차선책으로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1학년 남학생을 대상으로 신청해서 학습지 지원과 일본어를 가르치기 위해 일본어 그림책도 사했습니다. 아이가 말더듬이 있고 발음도 정확하지 않아서 언어치료를 받고 있었고, 장난기가 많아서 학습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았지만 해맑고 긍정적인 점이 좋았습니다. 겨울 방학 때마다 일본 초등학교에 한두 달씩 다니면서 일본어 글자도 조금씩 익히게 되었습니다.

다음 해에는 대상자가 두 명으로 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2학년이 된 그 남학생과 새로 들어온 1학년 중 일본인 어머니와 한국인 아버지를 둔 여학생에게 방과 후 지원과 일본어책, 문구류 등을 지원 했습니다. 1, 2학년을 묶어서 두 명에게 일본어를 가르치는데

2학년이 된 남학생은 장난치고 작년에도 배워서 안다고 열심히 안하는 반면, 여학생은 일본어 노래도 즐겁게 부르고 진지하게 학습에 임해서 실력차이가 컸습니다.

3년째인 올해는 지원이 없을 줄 알았는데 2달만 있습니다. 학습지 등 필요한 것을 사주고 방과 후 수업이 변함 없이 이어졌습니다. 다만 올해 달라진 점은 2학년이 된 여학생과 3학년이 된 남학생의 끝나는 수업 시간이 달라서 따로 수업을 했다는 정도입니다. 사실 큰 문제가 없으면 2,3학년 같이 수업할 수도 있었지만 배우고 싶어 하는 여학생이 피해를 입을 것 같아서, 대상이 한명 밖에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일부러 ‘1, 2학년 일본어 교실’을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2학년이 된 여학생이 집에서 일본인 엄마에게 특별히 배운 것도 없고 일본 학교에 다닌 적도 없는데, 일주일에 한 번씩, 1대1 수업만으로 놀랄 만큼 일본어 실력이 향상되었습니다. 여름방학 때는 ‘히라가나’라고 하는 일본어 문자를 거의 다 외우고 여러 가지 규칙도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어머니에게 “방학 동안에 집에서 일본어로 된 동화책을 많이 읽게 연습시켜주시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 드렸더니 잘 지켜주셔서 동생에게 책을 읽어주기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 성실함과 책임기를 좋아하는 마음가짐이 이런 큰 결과를 낳게 되었습니다.

이 여학생과의 수업은 목요일 6교시. 아이가 좋아할 만한 일본어 노래를 부르고, 그 다음으로 1학년 교과서를 읽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은 3번 반복해서 소리

• 나유끼마사에 다문화언어강사 •



학생이 준 목걸이

학생이 노래 부르는 모습

읽기 연습을 하는 모습

쓰기 연습을 하는 모습

내어 읽고 교과서에 맞는 워크북으로 쓰기 연습을 합니다. 손이 아프다 싶을 때에는 인터넷에서 뽑은 수학 문제를 풀니다. 그러면 딱 40분정도 됩니다. 1대1 학습으로 다른 학생의 방해받지 않아서 학생도 좋고 저도 즐거운 수업 시간입니다. 여러 명의 학생과의 수업 3번보다 더 효과가 있습니다.

이 여학생은 다른 방과 후 수업이나 복지관에서 하는 수업을 다 그만 두고 제 수업만 참석하고 있습니다. 스승의날에는 그 여학생에게 손수 만든 목걸이를 선물 받고서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다문화학생들 중 다른 사람을 배려하거나 어울리지 못해서 선생님에게도 친구에게도 인정 못 받고 외롭게 지내는 학생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 수업시간에는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친구를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 지금까지 관례적으로 1, 2학년, 3, 4학년, 5, 6학년으로 묶어서 2, 3명씩 1주일에 1번은 놀이 수업, 1번은 책읽기, 1번은 수학문제 풀이, 그 외에 일본인 부모를 가진 학생들에게 다문화 일본어수업을 했습니다. 하면서 늘 어려움을 느꼈지만 그것은 학생의 개인적 성향(심한 장난기, 제멋대로 행동 등등) 때문이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여학생을 보면서 그것이 잘못이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한 살이지만 학년도 다르고 공부의 진도나 실력도 다른 학생들이 같은 시간에 수학문제를 풀거나 책을 읽는 것이 처음부터 어려운 일이었던 것입니다. 남학생들이 떠드는 것을 보면서 그 여학생에게 늘 미안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남학생들 중에는 공부는 거들떠도 안

보고, 같이 노는 것도 싫고, 집에서 혼자 핸드폰 게임을 하는 것이 제일 재미있다고 말하는 남학생이 있습니다. 그 남학생도 진도에 맞는 개인 지도가 필요한 아이였지 않았을까 하고 깊은 반성을 했습니다. 이 결과를 보고 1주일에 한 번만 오게 되더라도 개인 지도로 바뀌어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모두가 다르기 때문에 긍정적인 학생에게는 더 많은 것을 가르쳐주고 배움이 느린 학생에게는 학습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해주는 단계부터의 맞춤 수업이 필요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언어와 모습만이 아니라 학습 진도도 모두가 다 다르다는 것을 다문화언어강사 10년 째 되는 해에 깨달았습니다. 저 자신도 획일적인 교육환경 속에서 자라왔기 때문이어서 그랬다고 너무 늦은 것 같지만 지금이라도 알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다문화 방과 후 수업을 실천하면서 계속 일하고 싶습니다.





열정상

나의 “다 같이 살기 위한” 문화수업, “다문화센스”를 키워 글로벌 세계로 떠나자!

■ 나에게 다문화수업이란

2011년 6월 고향 오사카를 떠나 한국으로 이사 오고 나서 3개월 후 경인교육대학교에서 경기도 이중언어 강사 연수를 받게 되었다. 그 때부터 나의 다문화강사 인생이 시작되었다.

“가르치는 것이 바로 배우는 것”이라는 말이 있듯이 어렸을 때부터 생각 없이 접했던 일본문화를 다시 공부하게 되면서 새로운 발견들이 정말 많았다. 예를 들면 일본만의 특이성이 있는 문화라고 생각했던 것도 알고 봤더니, 다른 여러 나라들로부터 크고 작은 영향을 받은 것이 많았다. 그뿐만 아니라 형식은 조금 다르지만 “원래”어디서 시작됐는지 알 수 없지만, 전통놀이나 행사 등 비슷한 것이 많았다.

그러다 보니 겉으로 봤을 때, 나라가 다르면 인종, 민족, 종교, 말, 습관, 사고방식 등 다른 것이 많지만, 조상들의 마음과 지혜, 그리고 자식에 대한 사랑은 다 똑같은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

나는 다문화수업을 할 때마다 나의 수업 목표는 항상 같은 문구로 시작된다.

“다문화수업은 다 같이 살기 위한 문화수업”이다.

다문화강사를 하면서 얻은 내 신념이다. 일본에서 다수의 일본인처럼 살았을 때와 달리, 한국에서 외국인으로 살면서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내 자신이 마치 장애인 같다는 느낌을 스스로 하곤 했다.

그러면서 소위 말하는 사회에서 불편을 겪는 사람들의 마음을 알게 된 것인지도 모른다. 우리는 누구나 학교나 직장에서 인정받고 싶고, 배우고 싶고, 잘 어울리고 싶고, 안전하게 살고 싶고, 자식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 등등, 한 마디로 우리는 ‘행복하게 살고 싶어하는 존재’이다.

■ 기억에 남은 학생들

이중언어강사 연수를 마치고 2012년9월에 배정받은 부천상도초등학교에서의 5년6개월이라는 시간동안 여러 다문화담당 선생님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귀국반(외국에서 2년 이상 지내다 귀국한 학생들을 위한 특별반)에서 국어, 수학, 사회 교과를 아이들과 같이 공부하고, 또 전 학년을 대상으로 다문화수업을 실시했다. 귀국학생들이 있는 반에서 수업을 할 때는 적극적으로 그 학생들의 나라를 소개하고 아이들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같이 진행하기도 했다.

그 중에서 파키스탄에서 온 아이가 있었는데, 이 아이는 다른 아이들하고 잘 어울리지도 못했고 파키스탄 문화수업도 “선생님이 알아서 하세요.”하고 무관심해 보였다. 그래서 혼자서 파키스탄 수업을 실시하였더니, 수업이 끝나고 쉬는 시간에 그 아이가 나에게 와서는 파키스탄 소개를 자기가 해보겠다고 말하였다. 같이 상의해서 다음 수업 때는 그 아이가 파키스탄의 전통 옷을 입고, 이슬람의 히잡을 머리와 얼굴에 두르는 방법도 알려주고, 파키스탄의 맛있는 음식을 소개

· 노마치유카 다문화언어강사 ·

하는 식의 수업진행 준비를 같이 했다. 당일 날 의외라는 표정으로 관심이 있게 보는 학생들이 대부분이었지만, 후반에 일부 남학생들이 떠들고 듣는 자세가 좋지 않아서 혼내기도 했었다. 하지만 그 아이는 그런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당당하게 설명을 끝냈다. 그 아이가 마음을 열고 친구들 앞에 섰다는 것도 좋았고, 자신의 나라와 문화에 대해서 높은 자신감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안심했던 것이 기억난다.

■ 마음이 복잡한 일본 아이들

귀국반에서 일본아이들도 많이 만났다. 일본아이들 같은 경우는 다른 나라에 없는 고통을 겪기도 한다. 독도나 식민지 이야기가 교과서에 나올 때마다 몸 둘 바를 모르고 쥐구멍이라도 들어가고 싶은 마음...

일본인이 아니면 알기 힘든 부분일 것이다. 역사와 정치적인 부분을 무시하고 한국인 아이들은 일본에 대해서 분노를 느끼고 그 감정을 주변 일본아이들에게 풀기가 쉽기 때문이다. 어른인 나도 조심스럽고 무심코 던져진 말에 상처받기도 하는데 아이들이면 얼마나 힘들까 싶다. 귀국반 아이들 중에도 “일본에 돌아가라!” 라는 말을 듣거나, 평소 같이 축구도 하면서 놀던 친구들이 갑자기 안 꺼주거나, 국제축구대회에서 일본 팀에게 지고 온 한국인 선수 아이가 일본에서 살다 온 한국인 아이에게 “친일파인 너 때문에 졌다” 같은 말을 한 경우도 있었다. 그럴 때마다 현명한 한국인 담당선생님과 학부모님들과 상담을 통해 대처하긴 했지만, 결국은 시간이 걸려도 아이들이 스스로가 극복하는 강한 모습을 보았다.

“한국에 돌아가라”라는 말에 상처받은 아이도 지금은 아주 활발하게 잘 지내고 있다. 중요한 것은 부모님의 나라에 대한 바른 이해와 자존심이고 한국 문화에 대한 이해다. 한국 학생들에게도 마찬가지다. 우리는 “나”를 잘 알지도 못하고 바른 생각을 못하면 “남”을 인정하지도 못한다.

■ 일본 문화의 또 다른 매력을 알게 해준 다문화 수업

2018년 여름에 인천외국어연수원 주최 2박3일 “인천 고등학교 일본어캠프”에 다도(茶道) 강사로 출강하게 되었다. 다도는 어렸을 때부터 듣고 보던 것이긴 하지만, 나에게 솔직히 형식을 갖춘 살짝 번거롭고 낯선 전통문화에 불과했다. 처음에 지루할 것만 같은 다도 수업을 맡아 고민도 했지만,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나의 생각이 180도 달라졌다.

7년이라는 세월을 다문화강사로 보내면서 문화에 대한 긍정적인 사고가 발달해서 그런지, 일본다도에는 일본인 특유의 정서와 예절이 상당히 많이 함축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나는 한국 청소년들에게 형식을 벗어나 정서적으로 의미 있는 시간을 가지게 해줄 수 있는 것을 확인했다.

현재 대부분 고등학생들은 과부하가 걸릴 정도로 입시 위주로 빡빡하게 돌아가는 학교생활에 지쳐 있다. 입시 과목에 밀려서 인성교육은 거의 할 수 없는 상황이고, 요즘은 뉴스에 자주 나오는 소위, 갑질 문제처럼 공부는 잘하지만 인격이 없는 무례한 사람들을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원인일 수도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일본다도수업(남을 위해 예의를 갖추며 정성을 다하는 경험)을 통하여 그들에게 다시 나의 소중함을 느낌과 동시에, 친구들과 선생님들에 대한 고마움, 나아가 남의 물건을 소중히 다루는 태도, 그리고 소중한 시간을 보낼 때 허리를 펴고 좋은 자세를 취하는 필요성 등을 느끼고 공감대가 형성되는 공간을 마련해주고 싶었다.

여름캠프 마지막 날에 어떤 일본어교사 선생님이 나에게 말한 것이 인상적이었다. 본인의 학교 대표로 온 학생에게 어떤 수업이 제일 좋았냐고 물었을 때, “일본다도 수업이 좋았다.”며, “수업을 받으면서 감동이 있어서 의외였다”고 대답했다고 하셨다. 공부하느라 경쟁하느라 늘 긴장과 스트레스에 처해 있는 학생



들의 마음에 다도가 그냥 옛날의 일본전통문화체험에 끝나지 않고, "남을 소중하게 여기자", "친구로 잘 지내 주고 같이 공부할 수 있는 것에 감사하자", "이 순간이 일생에 단 한번밖에 없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며 임하자", "바쁜 생활에 무너진 내 몸의 자세를 살피 주자" 등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다도의 메시지를 잘 받아들여준 것 같아서 정말 고마웠다.

그 이후, 여러 한국인 일본어과목 선생님들 앞에서 인 천소재 고등학교에서 다도 수업을 할 기회를 얻었다. 연송고등학교에서 같이 수업을 진행하신 고등학교 일본어교사 선생님께서도 "생각보다 학생들이 진지하게 참여해줘서 놀랐다. 아이들이 쓴 소감을 보니 많은 긍정적인 것을 느낀 것 같아서 고등학생들에게 다도 수업을 정말 추천하고 싶다"고 말해주시기도 했다.

■ 연송고 수업 후에 아래와 같이 자유롭게 느낀 점을 적어서 제출한 내용을 몇 개 소개한다.

1. 내가 생각하는 일본다도는 ----- 이다.
2. 일본다도 체험의 좋은 점을 써보세요.
3. 자신의 위치에서 내가 해볼 수 있는 "오모이야리(배려)"에 대해서 써보세요.

2학년
최승*군

나와 남 모두를 소중히 대하는 것

일본 다도체험을 통해 마냥 부정적이기만 하던 일본문화에 대한 내 편향된 시선을 조금 바꾸게 된 것 같다. 한국에서 빠르게 흘러가는 모든 것과는 달리, 다도 체험 중에는 서로 진심으로 인사하고 배려하며 천천히 차도 마시고 다과도 즐길 수 있었다. 일본인들의 정착된 생활태도가 이러한 문화들 속에서 결국 다져진 것이 그들을 대국으로 만든 하나의 원인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하였다.

나에게 큰 부담이 되지 않는다면 남의 집을 덜어주기, 지나치게 들뜨거나 우울해져서 상대의 기분을 살피지 않고 언행 하는 실수 없애기, 남에게 양보할 수 있는 마음가짐 지니기.

2학년
김승*군

일본인의 예의를 엿볼 수 있는 체험

인내심을 가질 수 있다.

상대방을 배려하기 위해서는 먼저 내가 상대방이 처한 상황을 알아야 한다. 그러므로 역지사지의 자세를 취하는 것을 내가 할 수 있고, 그것이 최고의 "오모테나시"라고 생각한다. 예를 들어 장애인을 무시하지 않은 것, 외국인을 차별하지 않기 등이 있다. 지금도 미래에도 우리가 오모테나시를 먼저 해야지 나중에도 점점 퍼진다고 생각한다.

2학년
박유*군

느림의 미학

일본 다도를 할 때는 위사람 아랫사람 상관없이 동등한 위치가 된다고 들었다. 신분에 따른 갑질 없이 서로 마음 터놓고 대화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좋아 보였다.

학교는 수 백 명의 학생들이 지내는 공동체이고, 한 학급만 해도 수 십 명의 학생이 공동체 생활을 한다. 이곳에서 나 혼자 내 이익만 챙기려 하면 나머지 친구가 피해를 볼 것이고, 이것은 오모테나시 정신에 어긋난다. 내가 약간 손해를 보더라도 다른 친구를 모두를 돕고 챙길 수 있는 마음가짐이 필요하다.

"다 같이 살기 위한 문화수업"은

단순히 다른 문화의 특이성을 소개하는 수업이 아니라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한 지혜를 배우고 태도를 바꿀 수 있는 수업이다.

나 또한 마찬가지이지만,
이기적인 생각을 잠시 뒤로 하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대립하는 시간이 있다면,
그것을 한 발 물러서서 내 자신을 바라보고
남을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차이를 인정할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을까 한다.

우리 다문화언어강사 모두 올해도 파이팅!



2018년 다문화언어강사 역량강화사업

함께 성장하는 우리들의 동행

발 행 일 | 2018년 12월 31일

발 행 처 | 재단법인 한코리아
(06928) 서울시 동작구 노량진로100, 6층

Tel. 02)811-0999

Fax. 02)811-0061

Home. www.hankorea.or.kr
